

중대산업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손병수[†]

SK에너지 SHE관리팀

(kiche@kiche.or.kr[†])

석유화학 공장은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많은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을 원료,반제품·제품, 첨가제,용제 및 촉매제 등의 형태로 사용, 취급 및 저장하고 있으며, 그 보유량 또한 크며, 운영 설비 시스템이 복잡하여 운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위험물의 누출,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지지역의 주민 및 환경과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장은 설비파손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설비 복구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사업장의 피해에 국한 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많은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SK 울산CLX는 여의도 3배 규모의 부지 위에 국내 최대 정유회사로서 석유정제 및 화학공장의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어느 사업장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공장이지만,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실행력과 전문역량을 높이고, 철저한 이행성 점검을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기에 동종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Role Model로 주목 받고 있는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자 한다.